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2022년 농지은행사업비 89억원 확보

✎ 엄정규 기자 | ☎ 승인 2022.01.27 13:17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세대 지원...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편동현)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은행 예산 89억원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진장지사는 지난해 75억에서 14억원 증액된 85억을 확보해 상반기에 70%이상 조기집행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무진장지사 농지은행사업은 ▲공공임대용농지매입 사업 43억 ▲매매/임대차 사업 6억 ▲과원규모화사업 9억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 132ha ▲부채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 2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지연금사업에 4억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경영이양직불사업 1억2500만원을 지원 집행해 고령농업인에게 평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임대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비 신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편동현(사진) 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농가 경영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엄정규 기자 crazycock27@naver.com